

경제

정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뭘 답나

부동산값 안정·稅制 선진화에 주력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반기 중 경기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지방선거 패배 이후 경제정책 혼란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정부가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담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6월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4일께 한국개발연구원(KDI), 민간 경제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거시경제점검태스크포스 회의를 한 뒤 당장 협의의 틀을 잡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해 다음달 초순 발표할 계획이다.

성장률 등 거시지표 조정 없을 듯 =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경제성장률 등 지난해 말 정부가 제시했던 주요 거시경제 지표의 올해 전망치 수정 여부다. 거시경제 지표 조정은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부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올해 4·4분기에 성장률이 3%대까지 떨어

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지만 그 정도까지 경기가 냉각되지는 않는다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일자리 창출도 올해 들어 4월까지 월 평균 32만5천명에 그쳐 정부의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지만 호조를 보이고 있는 수출의 영향이 하반기에는 고용시장에 영향을 주고 음식·숙박업의 취업자가 증가세로 돌아서 연간 35만~40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성장·안정·양극화·시스템 선진화에 주력 =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경기 회복세를 유지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인다는 목표 아래 투자활성화와 규제완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완화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

투자활성화·규제완화로 경기회복 유도 전문가들 “수출·내수 고른 성장 필요”

된다. 정부는 또 부동산 가격 안정과 국제수지 등 불안 요소의 안정도 하반기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래시장, 중소기업, 음식점 등 자영업자, 택시 등 서민경제 부문에서 구조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체감경기’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양극화 해소 등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조세제도 선진화, EITC(근로소득보전지원세제) 도입,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산업 성장 동력화 등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정책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 정책과 중장기 조세개혁은 지방선거 결과를 떠나 장기적인 시각에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며 “각 부문별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수단이 마련될 수는 있었지만 방향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경제정책에 지방선거 과정에서 파악된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정책방향 변경 여부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현재 여당에서는 고령화·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필요한 비과세·감면 축소 방침에 대해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고 거래세 등 부동산

정책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 정책과 중장기 조세개혁은 지방선거 결과를 떠나 장기적인 시각에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며 “각 부문별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수단이 마련될 수는 있었지만 방향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경제정책에 지방선거 과정에서 파악된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정책방향 변경 여부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현재 여당에서는 고령화·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필요한 비과세·감면 축소 방침에 대해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고 거래세 등 부동산

정책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 정책과 중장기 조세개혁은 지방선거 결과를 떠나 장기적인 시각에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며 “각 부문별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수단이 마련될 수는 있었지만 방향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경제정책에 지방선거 과정에서 파악된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정책방향 변경 여부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현재 여당에서는 고령화·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필요한 비과세·감면 축소 방침에 대해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고 거래세 등 부동산

알림 2006 광주·전남 부동산 전망 세미나 내일 광주시 여성발전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과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부동산 환경에서 지역민들의 효율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위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8일 오후 2시 광주시 여성발전센터

商議, 기업 신입사원 만족도 조사해보니... 도전정신·주인의식 “불만” 컴퓨터·외국어 능력 “만족” 기업들은 대졸 신입사원들에 대해 ‘주인의식, 도전정신 등 적극적 태도’와 ‘예절성, 성실성 등 기본 인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실제 느끼는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 소재 510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졸 신입사원이 갖춰야 할 역량들의 중요도와 신입사원에게 실제 느끼는 만족도를 비교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주인의식, 도전정신 등 적극적 태도’와 ‘예절성, 성실성 등 기본 인성’ 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그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6일 밝혔다.

국민·시티銀 ‘금리·수수료 부당 운용’ 고객들 590억원 손해

공정위, 69억 과징금 부과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부당하게 운용하거나 징수해 고객들에게 590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은 부동산 저가 임대료를 통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69억1천600만원의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신한은행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은행별 제재는 ▲국민은행(불공정거래 4건, 부당지원 1건) 과징금 63억 5천300만원, 경고 2건 ▲한국씨티은행(불공정거래 1건, 부당지원 1건) 과징금 5억6천300만원, 시정명령 1건 ▲신한은행(부당지원 1건) 시정명령 등이다.

공정위는 국민·한국씨티은행과 거래하면서 피해를 본 고객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은행 등 금융권의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02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장금리가 5.24%에서 3.77%로 하락했지만 6개월과 12개월 변동주금리상품인 ‘웰컴주택자금대출’의 대출 기준금리를

각각 7.70%와 7.90%로 고정시켰다. 국민은행은 같은 기간에 6개월과 12개월 금리변동상품인 ‘새로운주택자금대출’의 대출 기준금리도 조정하지 않고 7.65~7.95%로 유지했다.

국민은행 이런 불공정거래로 월평균 36만7천여 명의 고객들에게 488억원의 불이익을 주고 자신은 같은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또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계집단중도대출금’을 상환받으면서 대출약정서에 조기 상환수수료 약정이 없었는데도 1만9천489개 계좌의 상환금액 6천274억원 상당에 대한 조기 상환수수료 67억9천여만원을 받았다.

한국씨티은행은 2002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시장금리가 5.24%에서 3.71%로 하락했지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의 금리를 8.30%로 고정시키는 등 금리를 부당하게 운용해 고객들에게 34억원 상당의 불이익을 줬다.

신한은행은 200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중구의 빌딩을 계열사인 신한캐피탈과 신한생명보험에 정상적인 평당 임대료 8만4천원보다 낮은 7만원에 임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원했다. /연합뉴스



“추억의 과일 앵두 맛보세요”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6일 고객들이 올해 처음으로 출시된 앵두를 맛보고 있다. 가격은 한 팩(200g)에 4천500원이다. /연합뉴스

‘영세민’ 보증서 없이 전세자금 지원

광역시 4,000만원·지방 3,000만원 이하 건교부 내달부터 시행...주거안정 효과 기대

내달부터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민이라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없이 전세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전세자금을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나 영세민은 보증금을 받기 쉽지 않고 연대 보증인도 구하기 힘들어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영세민 등 저소득층이 보증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건교부가 추진중인 방안은 영세민이 임대주택을 임대할 때 공적으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금 반환채권을 은행에 맡겨 은행이 전세금까지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은행 실무자 등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며 “은행 전산망 보완작업, 실무자 교육 등 필요한 절차가 끝 나는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 수출증가율 아시아 최하위

올들어 싱가포르·중국·대만 등 아시아 경쟁국 중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최하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6일 발표한 ‘1~4월 아시아 경쟁국 수출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에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11%로 동아시아 주요 8개국 중 일본을 제외하고는 최하위였다. 경쟁국들의 수출증가율은 싱가포르 35%, 중국 25.6%, 대만 17.6%,

태국 15.6%, 인도네시아 13.2%, 홍콩 12%였으며 일본은 한국보다 낮은 4.2%였다. 반면 수입증가율은 한국이 17.5%로 싱가포르 25.4%, 중국 22.2%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다.

무역수지는 이 8개국 중 태국·홍콩을 제외한 국가들이 이 기간에 모두 흑자를 보였다. 이 기간에 한국은 33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중국이 336억달러, 일본이 187억달러 흑자를 보였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서준형 부사장 SID 특별 공로상 수상



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의 LCD 개발담당인 브라이언 버클리(Brian Berkeley) 상무는 SID의 사무원과 이사회 멤버로 선출됐다. /이종대기자 jilee@

삼성전자는 LCD총괄의 서준형 부사장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에서 특별공로상(Special Recognition Award)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함께 일합시다. Table with columns: Job Name, Department, Position, Salary, Start Date, Contact.

외국 자금증개사, 국내시장 잇달아 노크

트레디션 등 4개사 진출 타진

올들어 외환 파생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외국계 증권사들이 잇따라 국내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6일 금융권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외국계 자금증개사인 트레디션과 BGC, GFI, 일본계 니네파프 등 무려 4개사가 국내시장 진출을 타진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지난 2~3월에 일제히 증권사 설립 의사를 밝힌 만큼 이달이나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설립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증권사들이 국내로 몰려드는 것은 최근 국내 파생상품 시장이 급

격하게 증가하며 나뉘며 ‘파이’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3월 외국환은행의 외환파생거래 규모는 하루 평균 37억2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5% 늘어났다. 전 분기에 비해서는 31.9% 증가하며 현물환과 선물환, 외환 스왑 등 전통적 외환거래 증가폭 15.5%의 배에 달했다. 특히 지난 2004년 국내에 진출한 I-CAP과 지난해 들어온 프레본야마네 등이 국내 교두보를 발판으로 싱가포르 등 해외시장에서 원화 관련 파생거래 점유율을 높인 점도 경쟁적 국내 진출을 유도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합뉴스

3월 결산법인 현금배당 크게 늘어

유가증권시장내 3월 결산법인들의 2005사업연도 기말 현금배당이 실적 호전에 힘입어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가 상승으로 인해 시가배당률은 전년보다 다소 줄었다.

6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일 현재 현금배당 공시를 한 유가증권시장 3월 결산법인들의 2005 사업연도말 배당금총액은 약 7천952억원으로 2004년도의 3천739억원에 비해 112.68% 크게 늘었다. 배당 기업수도 2004년도 33개에서 2005년 42개로 늘었으며 주당 배당금

도 423원에서 512원으로 21.25% 증가했다. 이는 증권사를 중심으로 3월 결산법인들의 2005사업연도 실적에 전반적으로 호전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와 주가 상승으로 인해 배당성향과 시가배당률은 2004년도보다 다소 감소했다. 기업들의 평균 배당성향은 28.84%로 작년 사업연도의 36.95% 대비 8.11%포인트 줄었으며 시가배당률도 전년도 3.81%에서 2.81%로 1%포인트 낮아졌다. /연합뉴스